

존경하는 이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파주시 발전의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시는 세계최대 규모의
LG Philips LCD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또한, 통일동산내 8만 5천평 부지에
천억원을 투자하는 영어마을 유치로
출판산업단지, 헤이리아트밸리와 더불어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건설에
성큼 다가서는 크고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랜 숙원이었던 웅지세무대학이
내년도에 개교함으로써
자립형 교육도시로서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태고 나누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께서는
참담했던 태풍 매미의 현장으로 달려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인적·물적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모범으로 파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 주셨으며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시는

정인우수단체장 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평가에서 최우수상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상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우수상
농정평가에서 장려상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평가에서 특별상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알찬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24만 시민이 함께 일궈낸
값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행정도 품질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공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먼저 조직진단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낭비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고객 지향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전 공무원이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과정에서

날로 늘어나는 시민욕구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면서

NGO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모두의
공동이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CD 지방산업단지를 주축으로 조성되는
첨단산업 집적지와
과주출판문화정보단지, 헤이리아트벨리를 잇는
문화예술 집적지를 양대축으로 삼고

임진강 유역에

개성공단 배후 도시로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남북교류의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착실히 다져 나가면서

동북부지역 천연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통일 전초기지로서의 희망찬 미래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에

추진 할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간 균형개발의 기간이 될

SOC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사회간접시설(SOC)의 확충은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선 우리시의 동·서 축이 될
자유로-적성간 국도 37호선과
문발-통일로간 국지도 56호선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진행중인 35개 구간의
신규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시기를 재검토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한편,

LG Philips LCD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국지도 23호선과 금송-위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공업용수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승강장 등 교통시설기반을 늘려 나가면서

서울진입 광역직행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의 심야 연장운행과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통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2004년을 자전거 도로정비의 원년으로 삼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정수처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노후관을 대폭 교체하여 우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필수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증설을 요구합니다.
인구 50만에 대비하여
환경기초시설 용량을 늘려 나가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처리시설을 확장하고

축분혼합 공공 처리시설을

정상가동 시켜 나가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금촌하수처리장 등 5개소에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을

공기내 준공하여 수질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곡릉천을 시민이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도심변 하천으로 가꾸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미 조사를 완료한 낙후도 지표를 토대로

연도별 집중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산업 메카조성과 지역실물경제가
살아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차별, 육성지원 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규제와 간섭에서 협조와 지원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마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을 두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LCD 지방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 집적지를 활성화하여
국제적인 첨단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0억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면서
포장과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상품의 경쟁력과 기업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개척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출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재시장의 환경개선을 서둘러 생활권 중심의
상거래가 활기를 떨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 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업농 육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전문 농업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농업기반 확충과 정주권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영농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농촌 그 자체를 자원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과주임진강쌀 판매촉진을 위한 TV홍보와
쇼핑몰을 이용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와 대도시 백화점의
쌀 직판코너를 상설운영 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특색있는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문화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춰

화석정, 자운서원 등 기존의 문화 유산과
허준선생 묘역 등 미개방 향토유적지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테마별로 흥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제3땅굴 도보이용 관람로는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하여
셔틀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수입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출판 산업단지와 헤이리아트벨리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집적지를 집중 육성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 예술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문향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주가 문향의 전통을 살린 교육도시로서
거듭 날수 있도록 내년에 개교하는
웅지세무대학 설립지원의 경험을 살려
신흥대학 파주캠퍼스와
국제외식 관광대학을 비롯한 2~3개의 대학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욕구에 맞춰
문산읍과 파평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곡릉천 둔치를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등산로와 산림욕장, 근린공원과 함께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갖춘 10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을 늘려 나가는 한편,

1학교 1종목 꿈나무선수들을 선발하여
중점 지원함으로써 엘리트 체육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음지없이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함께 나누고, 돌봐 주어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동숙소와 도서실을 신축하고,
지속적인 공공근로 시행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 센터와
지체 장애인을 위한 이동 목욕차량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넓히는데 힘쓰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 및 주거 지원과 함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사업비와
생업자금의 용자를 확대해 나가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인 협의회와의
1대1 자매결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노인의 건강한 삶과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마을단위 경로당을 현실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체력단련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비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주간 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정보화교육, 리더십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면서,
여성과 노인계층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꾸미고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시설과 길거리 농구대 등
놀이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동아리페스티벌, 영어스피치대회 등의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교양 경진대회,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연수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시 정책과제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2004년도
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외적인 불안요인들로 인하여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LG Philips LCD공장 기반시설의 본격적인 착수와,
신도시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 착수 등
가시적인 개발여건이 성숙될 내년부터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와 같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첫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셋째, 투명하고 알뜰한 제정운영을 위하여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0억 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보다
1,0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고, 자체 재원부분도
신장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특별회계부분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머물러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04년도 시 정책기조는
내년 한해의 업무 계획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입니다.

이제 우리시는
과거의 소외와 규제에서 벗어나
희망과 성장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합심하여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면
2004년은 세계속의 도시로,
우리 파주가 크게 성장·발전하는
매우 뜻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24만 시민과 파주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5일

파 주 시 장 이 준 원